

호주의 목양산업(3)

호주 양모 중에서 엑스트라 파인(Extra-fine)용 양은 색슨(saxon)계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타스마니아(Tasmania)섬 내륙부,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나 뉴잉글랜드 지구, 빅토리아(Victoria) 주 서부 지구에서 사육되고 있다.

미디움용 양은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남부 리베리나(Riverina) 지구, 빅토리아 주 북부, 퀸스랜드(Queensland) 주, 서부 호주의 광활한 평야지대에서 사육되고 있으며, 가장 굵은 스트롱 메리노 양은 풀이나 물이 적은 남부 호주나 서부 호주 그리고 뉴사우스웨일즈 내륙부 지구에서 사육되고 있다.

특히 자연조건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호주에서도 타스마니아섬은 너무 좋은 자연조건이 구비되어 세번수 양모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양모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타스마니아섬이다. 이 섬에서는 약 3 만 마리의 슈퍼 색스니 메리노가 사육되고 있는데, 이것은 슈퍼 색스니 메리노종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순 혈통의 면양이다. 여기에서 깎아낸 양모를 윈턴 울(Winton wool)이라고 하는데, 이 양모는 특별한 주의와 엄격한 관리 하에서 매년 극히 제한된 수량의 세계 최고급 양모가 세상에 출하된다.

이 윈턴 울이 갖는 섬도, 길이, 광택, 백도, 유연성 및 탄력성과 풍요로운 정감이 있는 스타일과 캐릭터는 그야말로 양모의 예술품이라고 할 정도다.

윈턴 울이 좋다는 것은 그 굵기가 $16.5\ \mu\text{m}$ 이하이니까 어른의 머리카락 약 $100\ \mu\text{m}$ 정도의 1/6 정도밖에 안된다. 얼마나 가느다란 것인지 짐작할 만하다. 가늘면서 부드럽고, 그 나름대로 스티프니스가 좋으니까 양모의 극치란 말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타스마니아섬의 윈턴 울에 자극을 받은 뉴사우스웨일즈 지방이나 뉴잉글랜드 지구의 면양업자들도 이와 같은 가느다란 양모의 생산에 노력한 나머지 윈턴 울과 같은 양모

생산에 성공하고, 이러한 양모의 종류를 1PP란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 제일모직이 한때 양복 한 갑(3 yds)으로 천만 원에 출하하여 국내 양복업자가 이 천을 갖고 양복을 만들려고 할 때, 손이 떨어져 재단하기가 어려웠다는 에피소드를 남긴 양모이기도 하다.

이러한 1PP 양모의 연간 생산량은 3,000 kg가 한계이며, 양복을 만들 수 있는 수량으로 볼 때 1년에 1,000벌 정도의 공급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호주 양모의 종류를 super fine, fine, medium, strong 의 네 가지라고 하였으나,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여 extra-super fine 이란 종이 하나 더 생겨나게 되어 결국 다섯 가지가 된 셈이다.

이 1 PP양모는 경매시장에 나와서도 보통 원모(지부 양모) 1 kg 당 최하 5,000 호주 센트 정도로 경매가 시작되며, 이 양모를 갖고 방적, 제직, 염색, 가공하는 기술도 후진국 공장에선 상상도 못하는 어렵고, 까다로운 공정으로 인해 복지가 된 다음에도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 1PP 양모는 호주 슈퍼 파인 울 협회(Australia Super Fine Wool Association)에서 관리하고 있다.

메리노 이외에 호주에서 사육되는 양종은 주로 모·육 겸용의 양종들이다. 전체적인 양의 사육 마리수가 줄어들어 모·육 겸용의 양의 수도 많이 줄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도 호주의 주요 장모종은 Border Leicester와 Romney Marsh, 다운종은 Dorset Horn, South Down, Suffolk, Ryeland 등인데, 메리노 양 이외의 양모의 주체는 메리노와 영국 장모종과의 혼혈종이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Comeback, Quarter-bred, Half-bred, 3/4 bred, Polwarth 및 Corriedale 이다.

코리데일종은 1970년대 후반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호주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목양을 하고 싶다는 뜻을 살려 보내온 5,000마리의 양이 코리데일이었고, 이것이 지금도 전라북도 운봉과 대관령에서 잘 자라고 있는 종이다.

특히 Polworth 종은 호주에서 만들어진 유일한 양종이다. 이 외에 근래 호주에서 개량된

것으로는 뿔이 없는 메리노와 Dorset Horn이 있으며, 물필요한 뿔을 없앤 것은 큰 성공이었으며, 뿔이 없는 Dorset Horn(Poll Dorset라고도 한다.)은 영국으로 역수출하여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고기값이 싼 메리노의 개량도 진행되고 있으나, 이것은 미국이나 남아연방에 비하면 한참 뒤져있다.

근래 화학섬유와의 경합으로 양모의 값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양모와 고기용 메리노의 전환을 촉진시키고 있는데, 많이 정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양의 계통과 관리, 환경 등의 요소가 양모의 품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밀하게 분류하면 수천 종류의 양모로 구분시켜야 하는 복잡한 산업이 되었다. ♣ (공석봉)



<Winton Wool로 만든 모직물>